

DMZ 생태보전 국제기구와 협력

도, 글로벌 명소화 계획

경기도가 25일 DMZ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2017년도 DMZ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DMZ의 국제적 위상 제고, 개발·보전이 조화된 합리적 활용, 관광인프라 구축 및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해 DMZ를 역사·안보·생태·문화적 가치가 아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내용이다.

도는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내 유치한 국제환경전문기구인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아시아 사무소와 협력해 DMZ 환경보전 사업을 개발하고 생태평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임진각 주변에 습지체험학습원을 조성, 자연생태학습장 및 DMZ

ESP 아시아사무소 유치 생태평화 파트너십 구축 임진각에 습지체험학습원

주민 교육사업장으로 활용하는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을 내년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동선 내를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도록 개량한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와 DMZ 생태관광 거점인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여기에 DMZ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개발·보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 내에 병영·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을 도입해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

침이다.

이 밖에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DMZ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극대화해 호평을 받았던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전시회'의 2차 행사를 마련하고, 특색 있는 체험·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해 도라산 평화공원, 캠프 그리브스 DMZ체험관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한 참여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는 우수한 역사·자연유산을 지닌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이자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로 보전 가치가 크다"며 "DMZ라는 상징적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 발굴, DMZ의 가치 홍보와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道, DMZ 2017 키워드는 ‘글로벌 명소화’

도, 올해 DMZ 사업계획 발표

경기도가 올해 DMZ를 역사·안보·생태·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국제 환경전문기구인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와 협력해 DMZ 환경보전사업을 개발하고 생태평화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공원화 및 주요 관광거점을 연계한 참여형 콘텐츠도 집중 육성한다.

역사·생태·문화 가치 국내외 알리는 활동 전개 ESP 아시아사무소와 협력 생태평화 파트너십 구축 캠프 그리브스 내 병영체험관 도입 ‘역사공원화’

경기도는 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DMZ사업 운영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계획은 ‘DMZ의 글로벌 명소화’를 목표로 DMZ일원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

하고,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DMZ 국제적 위상 제고 ▲개발·보전이 조화된 합리적 활용 ▲관광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도는 우선 DMZ의 역사·생태·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내 위치한 국제 환경전문기구인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와 협력해 DMZ 환경보전사업을 개발하고, 생태평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는 곧 접경지역 개발·보전의 이젠디(Agenda) 선도 뿐 아니라 DMZ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는 밑거름이 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임진각 주변에 습지체험학습원을 조성해 자연생태 학습장 및 DMZ 주민 교육사업장으로 활용하게 될 ‘수리예코타운 조성사업’도 내년까지 완료한다.

민통선 내를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와 DMZ생태관광 거점인 ‘DMZ생태관광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반환 동여지인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 내에 병영·생태체험관 및 역사전시관을 도입, ‘역사공원’화 한다.

관광객들이 DMZ의 매력을 재발견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관광 콘텐츠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도라산 평화공원·캠프 그리브스 DMZ체험관 등 주요 관광거점을 연계한 참여중심의 콘텐츠를 만들고, 가족·청소년·동호인·선수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보고·즐기고·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힘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경기도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걷기 행사와 중추투어 뿐 아니라 평화가족 한마당, 나라사랑 DMZ 체험 캠프, DMZ 자전거투어, DMZ 청소년 탐험대, DMZ미술대회, 평화 통일 마라톤대회, DMZ 트레일 러닝,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등 특색 있는 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는 우수한 역사·자연유산이자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로 보전 가치가 크다”며 “DMZ라는 상징적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성격과 사업을 발굴, DMZ의 가치 홍보와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25.5 X 17.1 cm